

한-폴란드, 공급망·첨단산업 협력 강화 논의

- 산업통상부,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 -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4월 24일 서울에서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미하우 야로스(Michal Jaros) 차관과 면담을 갖고, 한-폴란드 간 경제협력 강화 및 공급망·첨단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이번 면담은 최근 양국 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고위급 교류로서, 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발전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과 폴란드는 폴란드가 EU 내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비셰그라드 4국(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중 최대 투자 진출국으로서 교역과 투자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우리 기업의 배터리 분야 대규모 투자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협력 기반을 더욱 발전시키고 무역의 확대와 교역 구조의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된 핵심 분야임을 강조하며, 폴란드 ESS 프로젝트에 현지 생산 한국 기업의 배터리 활용 확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배터리 산업이 「에너지집약산업 지원 법률」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였으며, EU 배터리법 하위 법령이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EU의 산업가속화법(IAA) 관련 입법 논의 동향에 대해 한국 정부는 FTA 체결국 제품에 대한 동등 대우 원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해당 제도가 EU 차원에서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운영되어

한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폴란드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국과 폴란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주요국 간 전략경쟁 심화, 에너지 전환 가속화 등 경제와 안보가 밀접하게 결합되는 환경 속에서 핵심 광물·배터리·방산 등 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 및 기술 협력, 그리고 정책 공조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였다.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차관보는 “한-폴란드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하며, “배터리를 비롯한 전략산업 협력을 넘어 공급망 안정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성과가 지속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폴란드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급망, 에너지 전환, 첨단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성과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관 구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양정식 (044-203-5660)
		담당자	사무관	장재희 (044-203-5663)